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 그 사이

김미현

국문초록

몸을 마음보다 열등하게 간주했던 근대의 시각·논리·이성·계몽 중심주의에 대한 탈근대적 저항으로 몸의 복원을 강조할 때에도 여성의 몸은 몸 자체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상화되거나 동물적인 본능을 배설하는 곳으로 폄하됨으로써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몸은 훼손된다. 여성들은 없던 다리가 생김으로써 성적인 대상이 된다. 그럴 때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찾거나 알릴 수 있는 목소리이다. 또 여성들은 자신의 오른쪽 유방을 잘라냄으로써 모성성을 약화시키고 인간성을 강화시킨다. 이런 순응의 극단에 인어공주가 있고, 저항의 극단에 아마조네스가 있다. 인어공주는 다리의 '첨가' 자체가 순응이 되는 몸을, 아마조네스는 유방의 '훼손' 자체가 저항이 되는 여성의 몸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어공주의 다리와 아마조네스의 유방 사이에는 텃줄이 잘린 흉터나 상처에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의 '배꼽'이 있게 된다. 여성(어머니)의 몸과의 분리를 통해 생긴 '배꼽'을 가지고 있기에 남성들의 몸 또한 온전치 못하다. 이것이 바로 여성 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오정희, 「중국인 거리」), 여성작가가 바라본 남성의 몸(전경린, 「남자의 기원」), 남성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이윤기, 「진홍글씨」)을 통해 내릴 수 있는 몸의 정치학이다.

1. 여성의 몸, 남성의 권력

이제 몸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몸 '이상' 이거나 몸 '이하' 이다. 그래서 다시 몸을 몸 자체로 보자는 담론이 생산되기도 한다. 몸을 마음보다 열등하게 간주했던 근대의 시각·논리·이성·계몽 중심주의에 대한 탈근대적 저항¹⁾으로 몸의 복원을 강조할 때의 몸 자체도 이미 또 하나의 권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생산이 아닌 소비, 즐거움이 아닌 쾌락, 관계가 아닌 소외와 연결될 때의 몸은 다시 정신이 '전족(纏足)'을 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몸을 몸 자체로 다루자는 말은 이처럼 몸이 몸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몸이 몸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몸이어야 한다는 일련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여성의 몸 또한 그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그 이하로 격하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몸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있게 된다. 한편에선 여성의 몸이 과학적인 '기계'로 인해 피폐해진 세상을 구원할 자연적인 '대지'로 간주되면서 그 자체가 풍요와 치유의 상징으로 격상된다. 그리고 남성의 몸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현실을 비판하게도 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영혼이 부재하는 텅빈 그릇으로 보아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남성의 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가부장적인 서구 문화에서는 텍스트의 작가가 흔히 아버지·조상·산출자·가장(家長)으로 비유되는데, 이 때 펜(pen)은 그의 성기(penis)와 같이 생식력의 도구로 치환되어 왔다.²⁾ 이때 남성이 아닌 여성의 성기는 감춰야 할 치부가 되고, 월경의 피는 더럽혀진 정액이 된다. 여성의 몸은 '나쁜 곳'이라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³⁾

1) 정화열, 『몸의 정치』(민음사, 1999) pp.9~10, p.266 참조.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한길사, 1999), p.23.

2) S. Gubar & S. Gilbert(1979), 서문 참조. Susan Gubar, "〈The Blank Page〉 and the Issues of Female Creativity", *Critical Inquiry*, (1981, Winter), p.247 참조.

이처럼 여성의 몸은 아직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상화되거나 동물적인 본능을 배설하는 장으로 폄하됨으로써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게 한다. 아직도 몸이 문제인 것이다. 성소이기도 하고 전쟁터이기도 한 여성의 몸을 통해 생산/소비, 주체화/대상화, 자유/억압, 즐거움/고통, 당위/존재, 전부/일부 등의 대립이 첨예화되기 때문이다. 이성 중심이었던 근대에 대한 반동으로 남성의 몸은 일반적인 몸으로 대표되면서 복권되거나 격상되는데 반해 여성의 몸은 아직도 금기시되거나 초월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혹은 자유와 권리라는 미명하에 더욱 교묘하게 지배나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권력이 행사되는 기본적인 영역으로서의 여성의 몸, 성애화(性愛化)와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 성적 욕망을 산출해 내는 지식과 권력의 특수한 장치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여성의 몸에 관한 논의가 **유용한** 문제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⁴⁾ 왜 그럴까. 여성의 몸이 특히 더럽기 때문인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순수하기 때문인가. 왜 여성의 몸은 지금도 몸 그 자체일 수 없는가.

3) 남성의 몸은 생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여성의 몸은 침묵된 채 선택과 거부의 대상일 뿐 스스로의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짐승과 병렬로 위치되거나 사랑과 같은 오락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숙인, “유가의 몸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철학회(여음),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철학과 현실사, 2000) p. 130.

4) 푸코의 논의와 페미니즘이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은 4가지이다. 양자는 몸을 권력의 저장소로, 즉 순종성이 확보되고 주체성이 구성되는 지배의 거점으로 파악한다. 또한 양자는 국가의 권력을 배타적으로 주시하기보다는 국지적이고 근접한 권력의 작동에 지적한다. 또한 양자는 담론이 헤게모니적 권력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것에 비중을 두며, 주변화된 혹은 인식되지 않은 담론의 내부에 존재하는 도전을 강조한다. 그리고 서구 휴머니즘이 서구의 남성 엘리트들의 경험을 진리, 자유, 인간 본성의 보편성인 양 주장한 점들을 양자는 공히 비판한다.

I. Diamond & L. Quinby, *Feminism and Foucault*, (Northeastern Univ. Press, 1988), 황정미, “푸코/페미니즘/모더니티”, 미셸 푸코외,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새물결, 1995) p.253에서 재인용.

2. 인어공주의 다리, 몸의 순응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⁵⁾는 전쟁과 휴전 직후의 인천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여자아이가 세상과 접촉하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모든 삶에서는 음험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나’의 정신과 육체의 이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나’가 앓게 되는 성장통은 곧 음험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통과 의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상과 삶의 이면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조숙한 아이의 시선으로 전쟁과 가난, 성의 문제를 성장 체험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때의 성장은 알지 못할 슬픔이나 비애에 감염되는 것, 일그러진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성장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는 이런 ‘나’의 정신적 성장이 육체적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며 맞물려 있다. ‘나’의 언니가 마약 생긴 젓망울 때문에 아파 하듯이, 그리고 양갈보가 되는 것이 꿈인 ‘나’의 친구 치옥이가 자꾸 기어오르는 작은 스웨터를 끌어 내려야 하듯이, ‘나’ 또한 키도 한 뼘이나 컸고 보폭도 커져 몰래 숨겨놓은 할머니의 유품을 찾아갈 때 그 거리가 65발자국이던 것이 60발자국으로 줄어들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가시적 성장이 양공주로서 몸을 파는 매기 언니나 애 낳는 기계처럼 살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정신적인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이 소설은 여성의 몸 자체가 여성의 자의식이 형성되는 곳이자 상실될 수도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

먼저 매기 언니를 통해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해 식민지화된 우리 나라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치옥이네 집에 세들어 사는 매기 언니는 백인 혼혈아인 딸을 기르면서도 흑인 병사와 동거한다. 그러면서 그와 결혼

5) 오정희, 『유년의 들』(문학과 지성사, 1981).

해 미국에 가는 것이 꿈인, 그 자체가 식민지화된 영토인 여성 인물이다. 더구나 나중에는 술취한 흑인 병사에 의해 이층에서 내던져져 죽음을 당하는 매기 언니의 몸은 그 자체가 침범당하는 식민지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여성이 지배해야 할 대상이거나 지배당해도 되는 물체라면, 그래서 침략 가능한 영토에 다름 아니라면 여성의 몸은 그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최후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처지가 지배자인 미국 남성과 피지배자인 한국 여성으로 육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매기언니의 몸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여성적으로 침략당하는 몸이 어머니의 몸이다. “일개 소대병력”을 낳고도 일곱번째 아이를 임신한 채 심한 입덧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여성들의 “동물적인 삶”에 대해 처음으로 동정심을 느낀다. “어머니의 구역질에는 그렇게 비통하고 처절한 데가 있었다.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나 풍요의 상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여덟 번째 아이를 낳으며 지르는 산고(産苦)의 비명을 “차라리 죽여줘”라는 절규로 듣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작되는 ‘나’의 “초조(初潮)”를 통해 어머니의 그런 삶이 ‘나’에게도 시작되었고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질곡의 삶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초조란 여성성의 개화이자 파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일곱 번째 아이를 배고 있었다. 가난한 중국인 거리에 사는 우리들 중 아기는 한밤중 천사가 안고 오는 것이라든지 배꼽으로 방긋 웃으면서 나오는 것이란 것을 믿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의 발가벗은 두 다리 째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온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오정희, 「중국인 거리」, p. 71)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몸의 경험 중에서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기에⁹⁾ 여성의 몸이 경험하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성

(gender)의 실천이 된다.⁷⁾ 이러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여성적 몸이 바로 ‘자궁(배)’이다.⁸⁾ 자궁은 생명력과 재생의 상징이기에 부픈 배를 갖고 싶은 욕망은 곧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욕망과 연결된다.⁹⁾ 그리고 자궁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여성성의 추구가 성공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한다.¹⁰⁾ 이런 자궁을 문제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성행위이고, 성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몸이 바로 여성들의 다리 사이에 있는 여성의 성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자궁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는 현상이며, 세상을 받는 그릇이다.¹¹⁾ 그런데 본래는 풍요로움과 생명력의 상징이어야 할 자궁이 현실적인 경제원리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궁핍함과 비생명력의

6) A. 선천적성(sex)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여성(female) 임신 및 출산 가능	남성(male) 임신 및 출산 불가능
B. 후천적성(gender) -사회적·문화적 요인	여성다움(femininity) 연약함, 시기심	남성다움(masculinity) 거칠음, 관대함

이홍탁, 『여성사회학』(법문사, 1986), p. 33.

7) 김은실, “발전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또하나의 문화』, 제8호(1991), p.150 참조.

8) 복부(腹部)의 여신인 보보(Baubo)는 머리가 없고 젖꼭지가 눈이며 성기가 입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세상과 대지, 그리고 여성들의 배가 풍요로움을 되찾게 된 것은 보보의 덕분이다.

클라리사 P. 에스테스, 손영미(역),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고려원, 1994), p.363.

9) 글자 자체에 있어서도 갑골문에 보여지고 있는 한자 ‘女’의 모습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본 뜬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갑골문에서 동일한 형상을 취하는 ‘母’의 경우도 아이를 품안에 안고 젖을 주고 있는 모습을 상형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자 문화권에서 ‘女’와 ‘母’는 여성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속성을 가리키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정순진, 『한국문화과 여성주의 비평』(국학자료원, 1982), p. 231.

10) 김경수는 현대의 여성시인인 김승희, 최승자, 김혜순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모성성의 한 특징으로서의 ‘분만’의 상상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김경수, “여성시의 원천과 분만의 상상력”, 『작가세계』(1990, 서울) 참조

11)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하나의 문화』, 제9호(1992), p. 115.

상징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궁이 생명을 잉태하는 풍요의 공간이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의 불임성이나 죽음의 공포성을 드러내는 결핍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몸의 성장은 성행위나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몸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몸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능의 배설이나 만족, 혈액의 재생산을 위해 제공되는 여성의 몸은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물상화될 때 여성의 몸은 대지가 아닌 식민지가 된다. 침범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몸은 노예의 몸이지 주인의 몸이 아니다.

이처럼 식민지화된 여성의 몸을 안데르센의 동화인 인어공주의 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하는 왕자를 얻기 위해 인어공주가 잃은 것은 자신의 목소리였고, 얻은 것은 두 다리였다. 목소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몸이기에 자아정체성을 상징한다. 반면 다리는 반인반어(半人半魚)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다리는 남근과 비슷했던 인어의 꼬리 대신 여성 성기가 생겨났다는 징표가 된다. 하나의 다리인 ‘꼬리’로는 남성의 몸이 들어갈 수가 없다. 때문에 피부를 갈라 두개의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다리가 갈라짐으로써 생긴 여성의 성기를 통해 인어공주가 비로소 성적인 여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인어공주의 피부는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처녀막처럼 찢어진 것에 더 가깝다. 그런 상실(꼬리, 가정, 목소리)과 육체적 고통(걸음을 걸을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인어공주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한 것이 된다. 몸의 안과 밖을 구분시키면서 몸 밖의 침투로부터 몸 안을 보호해 주는 것이 피부이지만 강요된 접촉은 피부를 피부같지 않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접촉은 여성들의 피부를 상실하게 한다. 이 때 안과 밖의 경계를 상실하게 하는 피부는 여성의 억압을 나타내는 젠더공간이 된다.¹²⁾

원하지 않는 성행위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인간화된 동물적 행위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남성은 성적 정복의 쾌감을 맛보지만 여성은 강한 모멸감과 처참함을 맛보게 된다. 대개의 경우에 성행위는 여성에게 있어서 성적 만족이나 사랑이 아니라 공포·불쾌감·수치감·모멸감 등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남성의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행위의 일방성과 남성 중심성은 가부장제하의 여성이 처한 물신화와 대상화의 상징이 된다.¹²⁾ 이러한 성관계에서 여성의 피부는 남성의 육체적 침투로 인해 상실된다.

여성이 이처럼 피부를 상실하고 다리(성기)를 가질 때 느끼는 고통은 성행위나 출산시에 겪는 몸의 고통이나 사회적 열등감에서 나오는 심리적 고통과도 연결된다. 자신의 몸의 주인이어야 할 상황에서 희생과 상실을 통해 남성의 침범과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의 운명이 인어공주의 다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이기 이전에 여성이 되어야 하는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갈라지고 찢겨지는 여성의 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불가침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침해될 때는 학대받는 때이다. 그런데 여성은 성행위를 할 때 관통되는 침투성의 육체를 가지게 된다.¹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관통이 '학대'가 아닌 '정상적인 사용'이라고 간주되면서 타당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세

12) 수잔 헤이트, "갈라진 피부:〈인어공주〉에 나타난 힘과 육체적 훼손", 김소영(책임편집), 『시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과학과 사상, 1995), pp. 141~62 참조.

13) 송명희, 『여성해방과 문학』(지평, 1988), p.94 참조

14) 성교는 보통 소유의 한 형태, 혹은 소유하는 행위로 쓰여지고 이해된다. 남자가 여자의 상위 및 안에 위치한다는 성교의 관계는 남자측에서 볼 때는 여자 소유인 것이다. 남자는 성교라는 여자 소유에 의해서 여자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여자에 대해 기본적 우위를 나타낸다. 때문에 톨스토이의 견해에 의하면 성행위는 반드시 여자를 물체화하고 그로 인해 바로 착취가 되기 때문에 여자를 열등하게 만드는 요소는 모두 성행위에 근원이 있다.

안드레아 도킨, 홍영의 역,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문학관, 1990), p. 37., p.106 참조.

계의 폭력이 여성의 몸에 가하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과의 행복한 성적 결합으로 인한 파열, 하나가 되기 위한 일시적인 분리의 피부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대상과의 강압적 성행위로 인한 파열,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피부의 상실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3. 오이디푸스의 배꼽, 몸의 방향

지배당하는 몸이 있다면 지배하는 몸이 없을 수 없다. 여성이 피지배자라면 남성이 지배자이다. 그래서 남성의 몸은 여성의 몸을 누르고, 쳐들어오고, 찌른다. 때문에 크고 강할수록 더 남성답다고 간주된다. ‘크기’나 ‘힘’에 대한 경도는 바로 이런 지배력의 강화와 상관 있다. 남근(penis)이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도 이 때이다. 그래서 프로이트에 의하면 남성은 남근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여성은 남근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다.

라캉(J. Lacan)¹⁵⁾은 이 때의 남근을 생물학적 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표로 설정함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상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라캉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단순히 남성 성기의 소유/비소유의 대립구조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라캉은 남근을 ‘penis’라고 쓰지 않고 ‘phallus’라고 쓴다. penis는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것을 가리키지만, phallus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걸핍되어 있는 특성의 기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라캉적 페미니즘의 특징은 기존의 생물학적 남녀의 대립을 욕망의 자리바꿈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라캉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론에서 생물학적 penis와 phallus가 서로

15) 라캉의 페미니즘 논의에 대해서는 마단 사립, “성, 사랑 그리고 페미니즘”, 『알기쉬운 자끄 라캉』, 김해수 역, (백의, 1995), 신명아, “라캉과 페미니즘”(『현대시 사상』 (1991, 봄)과 권택영(역)의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중 “페미니즘이론”, 신양숙(1995), pp.125~6 등을 참조할 것.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남성들은 그들의 penis 덕분에 상징적인 질서 내부에서 권력과 통제를 열망할 수 있지만, penis가 없는 여성들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에 페미니스트들은 라캉을 비판하기도 한다.¹⁶⁾

그런데 과연 남성의 몸은 그 자체로 온전한가. 그래서 흔히 오해되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혹시 그들의 몸도 여성의 몸처럼 상처입었거나 억압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남성의 몸은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¹⁷⁾ 전경린의 소설 「남자의 기원」¹⁸⁾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답을 구하고 있다. 여성들이 성적인 대상이 됨으로써 남성의 지배를 받는다면 남성들은 거세 콤플렉스에 시달림으로써 스스로 억압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거세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몸도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메두사처럼 강한 여성은 ‘이빨 달린 질(膺)’로 자신을 물어 죽일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¹⁹⁾ 부드러운 여성은 어머니의 따뜻했던 자궁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을 나약하게 한다. 공포나 위안 모두 거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적이 된다.

이런 남성들의 이분법적 기준이 여성을 마리아적인 여성과 이브적인 여성으로 나누면서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순수/관능, 천사/마녀, 성녀/악녀의 이분법적인 경직성²⁰⁾을 부여한다. 마리아적인 여성은 순수·천사·성녀의 축으로 연결되면서 순종·의무·희생·순수성 등의 의미를 형성한다. 반면 이브적인 여성은 관능·마녀·악녀의 축으로 연결되면

16) 엘리자베트 바텐테, 최석(옮김), 『XY,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민맥, 1993), pp. 214~5
참조. Margaret Homans(1986), *Bearing the Wor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pp. 6~9 참조

17) 피터 부룩스, 이봉지·한애경(역), 『육체와 예술』(문학과 지성사, 2000) p. 49.

18) 전경린, 『염소를 모는 여자』(문학동네, 1996).

19) 이수연, 『메두사의 웃음』(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 3.

20) 잉에 슈테판, “마녀 아니면 성녀?”, 『여성과 사회』, 제6호(1995), pp. 225~65 참조.

서 반항·권리·독립·관능성 등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러한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여성의 분리가 사실은 교묘한 여성 억압의 기제일 수 있다. 여성은 마리아이기도 하고 이브이기도 한 존재이지 마리아 아니면 이브이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경린의 보기에 이처럼 여성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남성들은 연어와 비슷하다. 때가 되면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들처럼 남성들도 자신이 태어난 곳인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모성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브가 아닌 마리아같은 여성에 대한 경도가 이를 증명해 준다. 남성들은 이브에게서도 마리아를 발견하려 한다. 전경린은 남성들의 이런 모성 콤플렉스가 거세 콤플렉스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에 대한 추구는 아버지와의 경쟁이나 아버지의 규제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때 ‘아버지의 법’에 대한 도전은 거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좌절되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몸’에 대한 아들의 욕망도 좌절된다. 하지만 이렇게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 유예된 욕망은 더욱 간절해지고 증대된다. 그래서 전경린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아들이나 연인, 남편들은 모두 “상실한 나라”, “결코 갈 수 없는 나라”를 지닌 고독한 존재가 된다.

어린 남자아이는 누구나 한 때 엄마를 빙빙 돌며 자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찾는 것 같다. 자신이 나와버린 천국이 엄마의 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몸짓이다. 아이는 그것을 찾고 싶어 엄마의 몸을 뒤흔지만 결국 찾지를 못한 채 아빠와의 싸움에서 지쳐간다. 그것은 영원히 달혀버린 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는 어느날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 요컨대 자기 아버지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중략) 어머니의 몸 안에서 누구나 한때는 고통 모르는 답수어였던 모든 아들들…….(전경린, 「남자의 기원」, pp. 172-3)

여성화자인 ‘나’의 아들은 “엄마, 난 아빠야”라며 “엄마는 내것”임을 강

하게 주장한다. 심지어는 장난감 칼과 총이 생기자 호전적이 되어 아버지를 내쫓고 엄마의 침대 옆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남편의 첫 직장 선배인 'D' 또한 집요하게 '나'에게 집착한다. D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일찍 재가한 어머니 때문에 모성 결핍증에 걸려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모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연어가 돌아올 때마다 전화를 걸어 '나'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 "난 네가 너무 보고 싶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가질 수가 없어서……"라는 D의 말은 '나'를 D의 어머니로, D를 '나'의 아들로 환치시킬 수 있게 한다. 반면 '나'의 남편은 '나'를 "전속 계약한 포주"처럼 성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한다. "합법적인 존재"로서 '나'에 대한 자신의 성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를 둘러싼 남성들을 통해 남성의 공격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된다. "정복자들은 마더 콤플렉스가 많았다더군"이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은 아빠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를 무찌르려고 한다. 더 커서 애인의 몸에 집착하는 남성은 사라진 모성 공간에 대한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혼한 후 아내의 몸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은 이제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전리품으로 아내를 전시하려 한다. 이렇게 볼 때 남성의 공격성은 좌절된 모성 추구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강한 정력에 대한 부담이 바로 여성을 정복하려는 남성다움이 지니는 강박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²⁰⁾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듯이 한 여자를 정복하려는 사람들"이다. 전쟁을 직접 일으키지 못하면 그 흥내라도 내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남자들의 기원이 바로 "다른 남자의 여자"인 어머니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성 또한 상처 입은 존재들인 것이다.

남성의 이런 공격적인 성향에서 벗어난 특이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21) 장필화, 『여성/몸/성』, (또하나의 문화, 1999) p.117.

남편의 친구이자 나의 선배인 '정해형'이다. 똑같이 모성의 결핍을 경험했어도 정해형은 “남자로서 핵심적인 한 부분” 즉 “상대를 덮칠 듯한 폭풍”이 결핍되어 있는 남성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공격성이 없다. 그는 D나 남편처럼 **강간하듯이** 여성의 몸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남성은 호모로 오인되거나 호모가 되기 쉬운 것이 남성의 비공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현실이다.

물론 전경린은 남성들의 이런 가학적 공격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포장된 선물처럼 열리지기를 기다릴 뿐”인 여성들의 **피학증과 수동성**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그래서 남성들로 하여금 **강간을** 저지르는 것처럼 억지로 밀어붙이게 하면서 공격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D와의 성적 위반을 통해 **자신만만함**이나 성취감을 맛보려던 계획을 수정한다. D에게 여성을 '정복' 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남성에게 있어 여성의 몸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은 깊은 동굴처럼 그 속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뿐 그 실체를 확인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곳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알수록 더 멀어지고 더 모호해진다.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남성에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그림자처럼 남성들을 따라다닌다. 그런 점에서 여성(어머니)의 자궁과 동굴은 동위태라고 할 수 있다.²²⁾ 여기서 자궁으로의 회귀를 추구할수록 자궁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남성들의 몸이 지닌 딜레마를 확인하게 된다.

'남자의 기원'은 어머니라는 여성의 몸 속이다. 그러나 그 몸은 전유(專有)할 수 없고, 머무를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다. 여기에 결핍된 몸, 채워지지 않는 몸, 분리된 몸, 고립된 몸으로 존재하는 남성의 몸이 지닌 태생적 비극이 있다. 이런 결핍, 부재, 분리,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모성 회귀 본능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²³⁾를 부르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거세

22) 테헤슈, “몸의 정치, 성차의 윤리-뤼스 이리가라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 이론』 제2호(1999, 겨울) p. 232.

콤플렉스를 부른다. 이런 거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들은 여성의 몸을 억압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세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즉 여성은 거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²⁰ 남성들은 자신이 거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나 거세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몸을 훼손시킨다.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몸을 전유하지는 못하기에 남성의 몸 또한 슬프고 아프다.

4. 아마조네스의 유방, 몸의 저항

“세상의 남성은 딸에게 바라지 않는 것은 아내에게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의 몸은 어떤 것인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아내와 딸을 차별하지 않는 페미니스트 남성에게 남아선호나 남존여비, 간음은 남성중심적이거나 남성우월적인 권력의 행사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은 상대방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여성의 몸에 낙인을 찍지 않는다. 여성의 몸은 또 다른 나의 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윤기의 「진홍글씨」²⁰에서 ‘A’는 “간음(Adultery)”의 A가 아니라 “아마존(Amazon)”의 A이다. 아마존은 고대 여인국(女人國)의 여전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원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존은 “젖이 없는 여인들, 무a 유방 mamos 여인들”이다. 원래부터 없었거나 양쪽 모두 없는 것이 아니라 활을

23) 이 때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의 실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정적(靜的)인 신화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관련하여 어느 자리에 위치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되는 하나의 유동적 구조가 된다.

피터 부룩스(2000), p.44

24) 조셉 브리스토우, 이연정·공선희(역), 『섹슈얼리티』(한나래, 2000), p.111.

25) 이윤기, 『두물머리』(민음사, 2000).

쓸 때 시위에 걸린다고 오른쪽 유방만 잘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기는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층적인 상징이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왜 그녀들이 스스로 자수형(刺繡刑)이나 자자형(刺字刑)을 받으려 했는지, 왜 오른쪽 유방이 없는 여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문 제삼고 있다.

여성만이 소유하고 있는 몸 중의 하나인 유방은 여성의 몸이 지니는 생산적인 분출성과 아이에게 제공할 모유로 대표되는 모성성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젠더공간이다. 그런데 이처럼 모유가 고여야 하고, 고이면 넘쳐나야 할 유방이 훼손된다면 현실적 조건과 부딪히고 있는 억압의 공간으로 변한다. 이윤기는 이처럼 변화된 유방의 의미를 통해 현실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한다.

자발적으로 아마존이 된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 ‘나’는 남녀동권주의에 관한 한 다른 남성들보다 앞서가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만 둘을 둔 여성이다. ‘나’의 남편은 “돌연변이”로 불릴 정도로 서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남녀 평등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들 없이 딸만 둔 자기 가족이 받는 처가로부터의 불평등한 대우에 분노하기도 하고, 제사나 가사일에서의 여성들의 고충도 잘 이해해 준다. 그리고 두 딸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믿음직한 남편이다.

그러나 “지진 다발(地震 多發) 지역에 선 내진 설계(耐震 設計)가 잘된 구조물”이라고 자부했던 남편이 뒤늦은 단독 유학 생활 중에 일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른다. 이런 외도의 배후에는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자인 남성일지라도 “수컷”이 지닌 “관성”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보고 싶다는 가부장적 욕구가 그의 외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윤기는 이런 남성중심적 사회에 반기를 들기 위해 아마존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그가 보기에 유방은 “수유(授乳)하는 기관인 동시에 그 수유의 원인 제공 노릇을 감당하는 작은 성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모순되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와 같은 지금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마플라스티(乳房整形手術)>”가 아니라 “아마존이 되기 위한 <마스텍터미(乳房切除手術)>”이다.

아마존의 오른쪽 젖 자르기는 병원의 무영등(無影燈) 아래서 벌어지는 현대의 <마스텍터미(乳房切除手術)>가 아니다. 그것은 모성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성의 노예노릇만은 거절하겠다는 피눈물나는 선택의 산물이 아닐 것인가. 낱알이 확산되어 가던 가부장(家父長) 사회에 대한 모권 사회의 마지막 저항의 처절한 몸무림은 아니었을까. (이윤기, 「진홍 글씨」, pp. 11~12)

흔히 아마존은 남자를 붙잡아 씨를 받고는 죽여버린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키르지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거나 불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도 아니면 바깥 세상에 내다 버린다는 “잔인한 무인 족속(武人 族屬)”들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남성중심적인 “히스토리인”(historian) 즉 남성역사가들이 의한 편견과 왜곡일 뿐이다. 만약 여성적 시각을 지닌 ‘허스토리인’(herstorian)들이 본다면 아마존은 모성의 완전한 포기가 아닌 부분적 희생을 통해서라도 남성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처절한 의지와 투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약탈과 사냥을 위한 유방 절제가 아니라 모성의 포기를 통한 더 큰 자아의 획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마존의 복수형인 아마조네스의 잘린 오른쪽 유방들은 저항하는 여성의 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유방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방이 아니라 ‘일그러진’ 유방이나 ‘있는 그대로’의 유방을 통해 자기 몸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다. ‘정형(整形)’이 아닌 ‘절제(切除)’를 통해 두려움이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수유로 대표되는 유방의 신화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몸에 부여된 특권보다는 그것이 해야 할 의무에 충실하려는 실존적 결단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여성의 임무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²⁶⁾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념이 헌신과 희생 뒤에 오는 여성의 자아상실 현상을 간과하게 한다. 그러한 모순을 인식한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면서 갈등을 일으킨다.²⁷⁾ 모성애는 철저하게 비이기적이고 마땅히 비이기적이어야 한다는 검토되지 않은 학설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 징역살이를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²⁸⁾

물론 긍정적인 모성이 나타나는 여성소설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어머니일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도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이고 여성이기에 그런 일방적이고 맹목적이며 희생적인 관계에 회의를 품을 수 있다. 특히 모성성이 사랑의 성취나 자아 발전처럼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와 부딪힐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기존의 관습 체계에서는 모성 거부를 악(惡)이나 타락,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만 희생적인 모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억압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²⁹⁾ 이윤기는 스스로 자른 한쪽 유방을 지닌 아마조네스들을 통해 이런 억

26) 이연정, “모성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p. 42.

27) 가부장제가 그 자체를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의 근본적인 원천은 여성이므로, 모성은 본질적인 여성다움의 궁극적인 운명으로 구축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가정애의 종속에 협력하는 다른 업압적인 신화들과 결합하는데, 이것을 샬롯 퍼킨스 길만(Charlotte Perkins Gilman)은 〈카이지의 4K〉라고—요리(Kuchen), 육아(Kinder), 교회(Kirche), 의복(Kleider)—이름붙였다.

K.K.Ruthven, 김경수 역, 『페미니스트 문화비평』(문학과 비평사, 1989), p.104.

28)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역,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평민사, 1995), p.21 참조.

29) Susan Rubin Suleiman, “Writing and Motherhood”, The (M)other Tongue, (ed) Shirley Nelson Garner, Claire Kahane, Madelon Sprengnether, (Cornell U.P. Ithaca and London, 1985), pp.352~377.

압적인 모성을 문제삼고 있다.

5. 여성의 몸, 남성의 몸

여성의 몸은 여성 경험의 가장 문학적인 토대이자 그에 대한 은유이다.³⁰⁾ 몸을 통해 세계와 접촉한다면 몸은 지울 수 없는 진실이 되며, 이해해야 할 비밀스런 지식의 저장소이자 세계와 만나는 접점이 된다. 몸 자체가 탐구의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몸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그들이 미완성의 존재이며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고, 몸을 매개로 타인과 주변 세계와의 상호관계의 장(場)을 연다는 의미이다.³¹⁾

그런데 세상은 여성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배제시킨다. 덧붙이거나 없애버린다. 그래서 여성들의 몸은 훼손된다. 여성들은 없던 다리가 생김으로써 성적인 대상이 된다. 그럴 때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찾거나 알릴 수 있는 목소리이다. 또 여성들은 자신의 오른쪽 유방을 잘라냄으로써 억압적인 모성성을 거부함과 동시에 인간성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여성에게 몸은 순응의 최후방이자 저항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순응의 극단에 인어공주가 있고, 저항의 극단에 아마조네스가 있다. 인어공주는 다리의 '첨가' 자체가 순응이 되는 몸을, 아마조네스는 유방의 '훼손' 자체가 저항이 되는 여성의 몸을 보여준다. 하지만 둘 다 온전한 몸

30) 헬레나 미키, 김경수 역, 『페미니스트 시학』(고려원, 1992), p.189.

31) C.A. 반퍼슨, 손봉호, 강영안역, 『몸 영혼 정신』(서광사, 1985), p.28.

물체로서의 몸과 체험된 몸을 구별해야 한다. 물체로서의 몸은 밖에서 본 육체성이다. 그러나 체험된 몸은 본질적인 육체성을 나타내면서 정신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고서 '나'의 체험과 관련되는 것이다. 때문에 3인칭이 아닌 1인칭의 입장에서 몸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p.134 참조.

이 아닌 훼손된 몸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몸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성의 몸 또한 여성(어머니)의 몸과의 분리를 통해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몸 또한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여성 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오정희, 「중국인 거리」), 여성작가가 바라본 남성의 몸(전경린, 「남자의 기원」), 남성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이윤기, 「진홍글씨」)을 통해 내릴 수 있는 몸의 정치학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할 때 여성의 몸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권력의 현실적인 작용점으로서의 몸과 저항의 시발점으로서의 몸이 그에 해당된다.³²⁾ 우선 여성의 몸은 억압받는 현실의 가장 가시적인 형태일 수 있다.³³⁾ 기존의 상상력에서 여성의 몸은 풍요로움의 상징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통해 변화된 현실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 몸은 권력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 차원을 떠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구성물이 된다.

여성들의 몸이 처한 이런 양 극단을 대변하는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 사이에는 남성들의 몸을 대변하는 오이디푸스가 있다. 그래서 인어공주의 다리와 아마조네스의 유방 사이에는 탯줄이 잘린 흉터나 상처에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의 '배꼽'이 있게 된다. 흔히 몸과 우주의 중심이라고 간주되었던 배꼽이 오이디푸스에게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끊어진 탯줄에 다름 아니다. 이미 잘린 탯줄과 배꼽을 이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어

32) 미셸 푸코, 이정우(해설), 『담론의 질서』(새길, 1993), p.169 참조.

이정우, “미셸 푸코에 있어 신체와 권력”, 『문화과학』, 제4호(1993, 가을), p.93 참조.

33) 장필화는 여성의 몸이 여성학의 연구과제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여성과 억압이라는 범주와 접맥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1. 여성의 몸과 여성의 억압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2. 여성의 동질성 문제에서 여성의 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장필화, “몸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한국여성학』, 제8집(1992), p.12 참조.

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도 어머니의 몸을 포기하지 못하는 남성의 몸은 잃어버린 어머니의 자궁으로 회귀하기 위해 인어공주의 다리 사이를 침범하기도 하고, 아마조네스의 유방을 탐하기도 한다.

물론 남성의 경우에는 보다 강해지기를 **요구당하고**, 여성은 더욱 부드럽고 약해지기를 강요받는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결핍이 문제라면 여성에게는 훼손이 문제이다. 그래서 남성의 몸이 '채움'이나 '결합'을 추구한다면 여성의 몸은 '복원'이나 '재생산'을 추구한다. 남성의 몸은 어머니의 몸과 그대로 연결되면 되지만, 여성의 몸은 꺾매지거나 다시 붙여져야 한다. 그래서 더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은 '사이'의 시공성을 통해 이런 차이의 '지양'이 아니라 '통합'을,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지향할 수 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보완적이고도 다양한 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을 만남으로써 인어공주도 되고 아마조네스도 된다. 남성의 몸 또한 인어공주같은 여성의 몸을 만나면 공격적인 오이디푸스가 되고, 아마조네스 같은 여성의 몸을 만나면 두려움에 떠는 오이디푸스가 된다.

이렇듯 여성과 남성이 반대의 성인 것처럼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도 서로 반대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과 가장 비슷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³⁴⁾ 그래서 여성과 여성 사이에 남성의 몸이 있는 것이다. 인간 사이의 성교는 동일한 성들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 몸에 가해진 '훼손'을 '해체(deconstruction)'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단어가 지닌 '파괴(destruction)'와 '구성(contruction)'의 합성어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³⁵⁾ 파괴됨으로써 다시 구성될 수 있는,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구성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의 몸이라면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축제와 제의 또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날 수

34) 토마스 라키, 이현정 역, 『섹스의 역사』(황금가지, 2000), p. 13.

35) 정화열(1999), p.266.

있을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지만 이성적 '동물' 이기도 하다.³⁶⁾ 그렇다면 여성도 '말(言)을 하는 몸' 을 지닌 인간일 것이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성들의 몸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 필자 : 이화여대 교수

36) 마크 존슨, 이기우 역, 『마음속의 몸』(한국문화사, 1992), p.19 참조.

Abstract

Princess mermaid and Amazons, between them

Kim Mi-Hyun

Even when the restoration of body is emphasized under the banner of resistance to the modern logocentrism which have regarded the body as inferior to mind, female body is not treated in itself. From one extreme point of view, it is idealized as the solution to all the problems and from the other, it is depreciated as the cathartic place of the instincts like animal. Therefore, female body is often hurt. Women become sexual objective-being by having legs newly. Just then, they are to lose their voice through which they can find and tell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women weaken maternity and strengthen humanity by removing their right breasts. So we can say that princess mermaid shows the obedient extreme and Amazons, the resistant extreme. Princess mermaid has the body which symbolizes an obedience with the “attachment” of legs, and Amazons, the body which represents an resistance with the “hurt” of breast. In addition, between legs and breast exists the oedipal omphalos, the trace of bruise derived from the umbilical cord. Man’s body are also incomplete because he has the navel which is brought to forth by the separation from mother’s body. It is the politics of body which is inferred from the female body seen by female writer(「Chinese street」 by Oh Jeong-Hee), from the male body stated by female writer(「the origin of man」 by Jeon Kyeong-Rin), and from the female body gazed by male writer(「scarlet letter」 by Lee Yun-Gee).